불교문화포교사 첫 배출 '눈길'

부산불교교육대학, 첫 수료자 44명 배출

불교문화를 도구로 포교에 앞장설 불교문화 전문포교사가 처음 배출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2월 20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합동 졸업식 및 불교문화 포교사 자격증 수여식' 을 개최했다.

불교문화포교사는 불교건축과 고미술 등 전통불교문화를 공부하고 일반인에게 설명해 포교에 앞장설, 불교문화 전문해설사다. 불교인구 감소 및 탈종교 시대에 불교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도 신청 등록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불교문화포교사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최고 전문가가 됐다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며 "불교문화를 도구로 누구보다 앞장서 포교를 담당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이 불교문화 포교사 자격증을 받은 졸업생들과 밝게 웃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난해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 올해 1월 31일 등록 승인을 받았다. 제1회 불교문화포교사 자격시험은 2월 13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원에서 실시됐으며 총 44명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한편, 2017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은 교리학과, 불교학과, 불교문화학과, 불교의식학과 등 7개 학과 이수자로 총 208명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교구 발전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고운사, 우수 종무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표창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가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고 모범적인 종무행정을 펼친 장기근속 재가 종무원과 산하 복지시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고운사는 2월 12일 45개 사찰 주지스님들과 40여 고운사 산하 시설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2017년 회계결산과 함께 교구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고운사는 안동장애인복지관 정상훈 국장 등 10명에게 모범직원 표창장을 전달하고, 대만 등에 다녀올 수 있는 해외선진지 견학의 포상기회도 제공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영전사 풍기어린이집 김용환 씨(22년) 등 13명에게는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한 교구종회에서는 교구 산하에 환경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다문화사회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과 참여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 2017년 교구 내 우수사찰로 선정된 대원사, 선찰사에도 표창장과 금일봉이 수여됐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전북불교대학, 졸업생 54명 배출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졸업식을 통해 총 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월 11일 4층 대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이창구 학장을 비롯해 임실 상이암 주지 동효 스님, 전북불교대학 교수 지강 스님, 반재상 총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130여 명이 참석해 불교학과 30기 39명, 법사과 25기 15명의 졸업을 축하했다. 또 전법사고시를 통과한 6명에게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사에서 "부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항상 묻고 또 물으며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보며 정진하는가 살펴봐야 한다"며 "진짜 업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찰 · 소방관 힐링, 스님들이 맡아요"

부산불교계, 불자회 창립 돕고 차 명상 수업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가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은 여러 사고 후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다. 신경정신과를 방문하거나 상담치료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빡빡한 일과로 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에 부산 불교계가 지친 경찰과 소방관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먼저 부산남구불교연합회 경승 스님들은 부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과 직원들을 위해 불자 법우회(회장 이현규)를 창립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지원 스님(문수사 주지)과 화랑 스님(동명불원 주지), 호명 스님(무문홍법사 주지), 능후 스님(대원정사 주지) 등 경승 스님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부산남부경찰서 법우회는 2월 21일 문수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남구불교연합회 사무총장 호명 스님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청장을 비롯해 간부를 만나 설득했다"고 창립과정을 보고한 뒤 "법우회 활동을 통해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힘들 때 서로를 위한 의지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현규 법우회장은 "부처님이 중생을 보듬듯 시민들과 함께 하고 불자경찰로서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스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창립법회에는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 경선 스님,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지원 스님과 경승 스님들이 참석해 격려했으며, 이흥우 남부경찰서장과 경찰 간부,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악조건 속 근무하는 직업
정서적 안정부터 우선돼야
스님들 의기투합해 지원
위문품 전달해 격려하기도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차문화대학(학장 보혜)은 선차 명상을 경찰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직접 지도했다. 기장차문화대학은 2015년 12월 29일 기장경찰서 경찰관 29명, 기장군민 12명을 시작으로 제1기 차문화대학을 개강했고, 2017년 3월에는 기장소방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차 수업을 이어갔다.

선차 명상을 경험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긴장의 연속인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차 한 잔과 명상은 마음에 힐링과 여유를 줬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2017년 4월 기장차문화대학에서 선차를 배운 기장소방서 김한효 서장 외 6명이 '향기입차다법' 을 선보이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경찰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차 수업을 진행한 원동력은 당시 기장차문화대학 초대학장이자 기장경찰서 경승실장이었던 정오 스님과 보혜 스님의 노력이 맺은 결과다.

기장경찰서 경승실장 정오 스님은 "당시 불자였던 청장님의 도움도 컸고, 부산차인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인으로 차에 조예가 깊은 보혜 스님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경승으로서 경찰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장 보혜 스님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차 수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앞으로는 기장지역주민을 위한 힐링 차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금정경찰서 경찰관과 지역 지구대 대원을 위해 점심 공양을 사찰에서 제공하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또 지난해 12월 14일에는 49일 수자재 기도정진을 마치고 부산 금정구 소방서를 방문해 컵라면, 초코파이 등 100만원 상당의 간식 위문품을 전달했다.

주지 고담 스님은 "포교를 넘어서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찰서에서 진행해온 동지 팥죽 나눔을 멈춘 상태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심과 격려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과 함께 나눈 고향의 그리움

전북불교계, 스리랑카 스님 초청해 특별법회 봉행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자국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5일 완주 근로복지공단 대강당서 열린 법회에는 스리랑카에서 방한한 반야사라 스님과 스리랑카 대구사원 비엔난다 스님, 스리랑카서 수행하는 위지따(한국 법명 종원)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 등 스님들과 스리랑카 근로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좋은이웃' 정용기 대표의 주선으로 봉행된 이번 법회는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에 앞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숙소에서 스리랑카 전통방식으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스님들은 이들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설하고 비엔난다 스님이 인연법의 '선인선과 악인악과' 를 주제로 법문했다.



불상과 사리이운을 하는 스리랑카 스님과 노동자들.

법회장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운집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스님들을 맞으며 불상과 사리 이운의식을 했다. 근로자들은 스님들 뒤를 따르며 예의를 갖춰 무한한 공경심을 표했다. 부처님에 대한 공양에 이어 반야사라 스님은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법문하면서 참석한 200여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고 희망을 전했다.

진성 스님은 "가족들과 떨어져 머나먼 한국 땅에서 고생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하고 "우리 산업사회에서 차지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고충을 살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한지 10년째라는 고길라(32)씨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부모님 새집도 지어드리고 동생도 결혼시켰다"며 "고국의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볼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약 2만5000명의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는 완주, 군산, 익산 지역 공단에 약 1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고창불교회관 3월 중 건립 추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2월 8일 불기2562년 1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고창 월곡지구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특별분담금 현황, 2017년 결산과 2018년 예산안, 종교인 과세 등 교구 전반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경우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씨원류〉 목판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창불교회관은 오는 3월중 착공해 11월 경 완공할 예정이며, 불교문화체험관은 2년에 걸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구니 노후 수행관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제11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미륵당길 70 봉업사 (☎ 031-676-0900)
■ 시 간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1년 과정)
■ 비 용 : 입회비 200,000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7년 3월 3일 오전 9시

특강
법고무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연락처 ▶ 회 장(관희) 010-8290-6623
강 주(문곡) 010-3727-0870
총 무(진효) 010-5306-0856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관희 합장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